

#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1.21, 한-EU연구협력센터>

## ○ 글로벌 과학 협력 수호에 EU만 홀로 남을 위험 제기(1.15)

- 유럽의회 Ehler 의원은 미 행정부가 국제 과학 협력에서 후퇴하는 가운데, EU가 글로벌 협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
-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(영국, 스위스, 일본, 노르웨이 등)들은 EU 회원국과 준회원국 연구자 간 명확하고 동등한 조건, 준회원국의 신속·원활한 가입 절차,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 보장, '이중용도'를 이유로 한 과도한 제한 방지의 중요성을 지적

## ○ 미국, EU 제외한 AI 공급망 기술 동맹 출범(1.15)

- 미국이 주도한 인공지능 기술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 동맹 'Pax Silica'에 EU가 참여하지 않으면서, 안보·기술 분야 미-EU 간 균열이 더욱 뚜렷해짐. 양측의 정책·철학적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(AI 규제 측면에서 EU는 포괄적 AI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, 미국은 규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)
- ※ 현재까지 일본, 한국, 싱가포르, 이스라엘, 카타르, 영국, 아랍에미리트가 서명, 인도도 곧 참여할 것으로 예상
- 다만 네덜란드 및 EU 관계자들은 Pax Silica 출범 행사에는 참석했으며, 미국도 ASML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.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주도 기존 기술을 모방 하기보다,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

## ○ EU, 사이버보안 패키지 발표(1.20)

- 패키지는 개정된 사이버보안법(Cybersecurity Act)을 포함하며, EU 정보통신기술(ICT) 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고,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사이버보안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며, 기존 EU 사이버보안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, EU 사이버보안청 ENISA의 역량을 강화

- (기타) ▲EU의 가상세계(Virtual Worlds) 연구혁신 파트너십(1.20) ▲호라이즌 유럽 2026년 CL4 디지털 클러스터 공고(1.14) ▲AI의 도입으로 인한 논문 가독성 저하(1.20) ▲고정임기 학술 계약으로 인한 급진적 연구 위축(1.20)